

광주법정 소환장 2002년 출처 민변

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5.18시민법정

재판부
재판장 최병모

소 환 장

- 수신
1. 제임스 얼 카터, 1980. 5. 당시 미국 대통령
 2. 윌리엄 글라이스틴, 당시 주한미국 대사
 3. 존 아담스 위컴, 당시 주한미군사령관, 유엔군사령관, 한미연합사령관, 미8군사령관
 4. 헤럴드 브라운, 당시 미 국방장관
 5. 스탠스필드 터너, 당시 미 중앙정보국 국장
 6. 즈비그뉴 브레진스키, 당시 미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
 7. 워렌 크리스토퍼, 당시 미 국무성 차관
 8. 리처드 홀부르크, 당시 미 국무성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

참조 미합중국 정부

귀하들은 2002. 5. 18. 14:00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5.18시민법정에서 시민검사단이 제출한 기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80. 5. 18.을 전후하여 광주에서 자행된 내란죄, 내란목적살인죄, 집단살해죄, 인도에 반한 죄 등의 범죄와 내정간섭의 위법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일시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에 응해야 합니다. 귀하들은 위 기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, 이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 반대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귀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방어권이 모두 보장될 것입니다. 이 재판은 지난 2002. 4. 25. 제정되어 선포된 <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.18시민법정 현장>의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될 것입니다.

첨부서류 : <현장> 1부, <기소장> 1부

2002. 5. 14.

5.18시민법정 서기 이 정 희 (직인 생략)